

임실군, 농업인 실용교육 성료

종합반·전략작목반·농촌여성반 1200명 참여 진행... 소득 증대

임실군이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추진한 2018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이 큰 호응을 얻으며 마무리됐다. 군은 지난달 16일부터 읍면사무소와 군청에서 총 18회에 걸쳐 진행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22일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해 영농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롭게 연구개발된 신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교육은 종합반과 전략작목반, 농촌여성반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벼와 고추를 대상으로 한 종합반은 12회에 걸쳐 12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또한 부추와 흑염소, 호두 등 전략작목반의 경우 5회에 걸쳐 300명이, 농촌여성반은 100명이 참여하는 등 총 18회에 걸쳐 1600명이 교육을 받았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1969년 '겨울농민교육'으로 시작하여 올해 49년째를 맞는 연중 최대 규모의 군단위 농업인교육으로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지역농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다.

올해에는 AI 발생으로 축산농가의 교육 불참에도 불구하고, 12개 읍·면에서

최고 132%의 높은 참석률을 보이며 교육에 대한 열의 및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벼, 고추를 중심으로 고품질 생산 핵심기술, 농업기계 안전사용 교육,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 전략작목 핵심재배기술 등을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강의하면서 교육의 신뢰도와 농업기술센터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교육에 참석한 농업인들은 "갈수록 농업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농사를 지어 생계를 이어간다는 게 너무 힘들고 버겁다"며 "하지만 행정에서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교육을 해주니까, 농가소득을 높여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임실군과 같은 농촌지역은 세계화와 자유무역이라는 무한경쟁의 물결속에서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만성적인 일손부족, 그리고 가뭄, 한파, 풍수해 등 기후변화, 농산물 수급 불안정 등 온갖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군 농업기술센터는 작년부터 매월 1회 분야별 영농 현장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실시한

농업기술센터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인에게 농업기술의 신속한 보급, 새로운 소득작목 육성, 농업인 교육 등을 통해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여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있다.

또 쌀 수급안정 대책, 농산물우수관리제도 등 농업정책과 연계한 교육과 발농업기계화, 스마트팜, 아열대 과수, 곤충산업 등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심민 군수는 "올해 군정운영 방향을 배천작전(配天作戰)으로 정한 만큼, 초심을 잃지 않으며 군민행복을 위해 핵심시책들을 차근차근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며 "특히 농촌지역인 만큼 농업인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 적극 추진해 지역농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살기좋은 농촌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 농업기술센터는 현장 애로사항 해결 및 임실농업 경쟁력 향상 위해 농업인대학과 e-비즈니스, 품목별 교육 등 다양한 농업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태권도 전지훈련장 '각광'

순창골체육관서 360명 선수단 전지훈련 실시

지리산권 스포츠 중심도시인 남원시 태권도 전지훈련장으로서 각광받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에 따르면 23일부터 3일간 남원 순창골체육관에서 29개교 360명의 선수단이 남원시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지리산 스포츠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적극적인 전지훈련을 유치하고 있으며, 지리산으로 대표되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잘 갖춰진 훈련시설, 적극적인 행정지원 등을 통해 2018년 2월 현재, 유소년 축구, 복싱, 테니스 등 2,500여명의 전지훈련 선수

단이 다녀갔으며, 방문한 선수단 및 지도자들의 입소문을 통해 매년 전지훈련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완주 남원시장은 "이번 전지훈련을 통해 태권도 중추국인 우리나라 태권도의 미래를 짊어질 꿈나무 선수들의 기량향상과 생활체육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하면서, 매년 전지훈련으로 남원시를 찾아오는 선수들을 위해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및 각종 지원 등을 통해 전지훈련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홍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지역 매아리

순창군 친환경농업 관련 교육 실시

순창군이 우수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고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기 위해 22일 친환경농업연구센터에서 80여 농가가 참여한 가운데 친환경농업 관련 교육을 실시해 친환경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을 줬다.

이번 교육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박민규 계장이 GAP(우수농산물) 인증제도 및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데 이어 전남대학교 김길용 교수가 GCM(미생물)농법 소개 및 사용농가 현황과 농가들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방법 등을 교육해 농민들이 친환경 농업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현장 기술까지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특히 순창 친환경농업연구센터에서 생산하는 고온성 GCM에 대하여 유기농자재계 담당자가 앞으로 공급계획을 상세히 밝혀 농민들의 기대를 모았다. /순창=이영원 기자

오수면 주민자치위원회 정례회의

임실군 오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22일 오수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8년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끌어 갈 임원진 선출, 주민자치 프로그램 선정, 군정 및 민정 홍보 협조 사항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가 새로 시작된 만큼 활동분야를 보다 넓혀 뜻깊은 2018년을 만들어가자는 결의를 다졌다.

한편, 이번에 취임한 이강국 주민자치위원장은 "변장님을 비롯한 면사무소 직원들과 협력해 주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오수면을 만들어 지역에서 으뜸가는 단체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마을이 웃는 즐거운 공동체' 활성화

남원시, 공동체 지원센터 개소식 가져

남원시가 22일 공동체 지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 및 시민과 행정의 중간지원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위한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마을이 웃는 즐거운 공동체라는 슬로건을 갖고 출발한 개소식에는 남원시장과 남원시의회 의장 및 의원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공동체 활동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된 개소식은 공동체가 버리는 방향과 나아가야 할 멘토 행사로 희망쪽지를 직접 작성하여 새끼줄에 거는 것을 시작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체로 거듭날 것을 당부하는 말씀과 테이프 커팅식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쳤다.

시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날이 갈수

로 심각해지는 개인주의의 갈등을 해결하고 화합하여 관계를 이어나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을 공동체 활동을 통한 시민의 다양한 참여라고 판단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접근 및 발전시키기 위하여 2017년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공동체 전담팀을 만들었으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공동체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해 준비해 왔다.

특히 지난 1월, 시민 중심으로 이끌어 나갈 남원시 공동체 지원센터 직원 선발을 위해 전국에 채용공고 실시하여, 5명 모집에 30명의 유능한 인재들이 지원한 결과,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다년간 공동체 활동 경력에 많은 전문가들로 선발됐다.

앞으로 공동체 지원센터에서는 핵심적인 역할로 마을마다 숨어 있는 마을활동가 등을 발굴하는데 중점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한 지속적인 육성교육과 커뮤니티를 실시하여 도시와 농촌 구분 없이 마을마다 웃음이 가득하고 많은 시민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공동체 모습들을 만들어 갈 계획이며, 타시군 공동체와도 연계를 통하여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계획도 가지고 있다.

한편 이완주 남원시장은 조직과 체계를 갖추고 첫 발을 내딛는 시점이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출발할 계획이며, 앞으로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와 창의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은 하되 간섭은 배제한다는 원칙으로 센터가 시 전반적인 공동체 활동의 베이 스텝으로 정착되어 지역 발전에 커다란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공립 보듬이나눔이 성가정 어린이집 개원식

순창군 북흥 공립 보듬이나눔이 성가정 어린이집이 문을 활짝 열면서 북흥지역 보육 환경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군은 22일 북흥면 정산리 403번지 북흥 공립 보듬이나눔이 성가정 어린이집 완공에 따른 개원식을 진행했다.

이번에 완공된 보듬이나눔이 성가정 어린이집은 지상 1층 333.35㎡ 규모에 최대 보육정원은 56명이다. 지난해 총 8억 9700만원을 투입해 보육실 4개, 교구실, 조리실, 야외놀이터, 교사실 등을 갖췄다.

북흥 공립 보듬이나눔이 성가정 어린이집의 개원소식이 알려지면서 북흥면민들의 기쁨은 남다르다. 기존 성가정 어린이집은 지난 1994년 공사장의 폐 폐널 자재로 건축한데다 1997년도에 인가를 받은 이래 20년 이상 경과 되어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아이들의 안전문제를 지속적으로 걱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천주교 전주교구로부터 북흥면 정산리 403번

지 토지를 무상사용 조건으로 제공받아 사업을 추진했으며 국비와 군비도비 등 5억 3000만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푸르니보육지원재단에서 3억 6700만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완료했다.

특히 북흥지역은 순창읍에서도 30km 넘게 떨어진 곳으로 어린이집이 꼭 필요한 지역이다. 관련해서 이날 진행된 개원식에는 황숙주 군수를 비롯해 김중섭 군의회 의장, 손종석 군의회 산업복지위원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북지회 정동의 사무처장, 푸르니보육지원재단 김대영 부장 및 주민 등 120여명이 참석해 북흥 공립 보듬이나눔이 성가정 어린이집의 개원을 축하했다.

한편 순창군은 금과 공립어린이집에 이어 이번 북흥 공립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이 완공되면서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전년도 평균인 3.83%를 크게 웃도는 35.72%를 나타내며 안전한 보육환경 인프라 조성에 탄력이 불고 있다. /순창=이영원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